


202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 한국미술경영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오늘의 전시: 방법론의 진화와 경험 확장

- 일시 : 2023년 11월 25일(토) 오후 2시~5시 ZOOM 실시간 생방송
- ZOOM 접속 :  zoom 웨비나 ID : 826 7219 9355, 암호 : 879329

개회식

- 14:00 - 14:05 개회사 (이민하 / 중앙대학교)
14:05 - 14:10 축사 (양정무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주제 발표 (사회자: 정호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문센터)

- 14:10 - 14:35 팬데믹 이후 전시기획의 현장 (김지연 / 전시공간 d/p)
14:35 - 15:00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 (유원준 /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15:00 - 15:25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시 관람의 사회문화적 효과 분석 (심규선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15:25 - 15:50 아티스틱 리서치의 형식, 그리고 전시 방법론의 문제들 (권태현 / 미술평론가)
15:50 - 16:15 국내 · 해외 미술시장의 흐름 (이지민 / 가나아트갤러리)

종합토론 (좌장: 이임수 / 홍익대학교)

- 16:20 - 17:00 발표자 전원

202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 한국미술경영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오늘의 전시: 방법론의 진화와 경험 확장>

- 발표자 : 김지연(전시공간 d/p)

- 제목 : 팬데믹 이후 전시기획의 현장

팬데믹은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의 기획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심 없이 추진하던 전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예술창작과 향유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팬데믹 당시 분주하게 이루어졌던 ‘현장성의 디지털화’는 예술을 새롭게 정의내려야 하는 시대의 시그널처럼 확산되었다. 그렇다면, 엔데믹을 말하는 현재, 전시는 과연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전시의 패러다임은, 팬데믹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던 것처럼 과연 바뀌었는가. 본 연구자는 비엔날레, 국공립미술관을 비롯하여 페스티벌 등에서 두드러지는 전시기획의 경향 연구를 통해, 동시대 전시의 지형을 확인하고, 전시의 미래를 상상해보고자 한다.

- 발표자 : 유원준(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 제목 :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

최근 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스노 크래쉬>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서 물리적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뒤섞이고 있는 비물질적 세계로서의 가상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팬데믹 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이상 징후를 경험하며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법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예술의 경우 다양한 방식과 형식으로 과학 기술과 결합하여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예술의 경우, 그것이 전시되는 환경을 물리적 현실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물론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전시는 물리적 현실에 근거한 전시와는 다른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메타버스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이러한 속성으로부터 오히려 전시 및 예술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발표자가 제안하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예술 전시가 지녀야 할 새로운 방법론은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을 적용한 전시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메타버스 환경이 갖는 예술적 의미를 살펴보는 동시에 게임이 지닌 몰입성과 상호작용성에 기반한 전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 발표자 : 심규선(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 제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시 관람의 사회문화적 효과 분석

전시 관람과 같은 예술 활동이 개인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는 무엇일까? 개인이 전시 관람을 통해서 느끼는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평가와 함께 관람객 수, 관람 행위에 따른 소비 지출 등의 정량적 평가는 전시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활동의 사회적 효과의 객관적 평가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시관람의 문화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202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 한국미술경영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오늘의 전시: 방법론의 진화와 경험 확장>

- 발표자 : 권태현 (미술평론가)

- 제목 : 아티스틱 리서치의 형식, 그리고 전시 방법론의 문제들

예술을 위한 연구도, 예술에 대한 연구도 아닌 예술적 연구(artistic research)는 여러 학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학위 제도와 관련하여 점점 더 독립적인 학제로 여기는 경향도 포착된다. 새로운 지식을 객관적인 결과물로 제시하는 연구와 지극히 주관적이더라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내는 예술의 교차는 기존의 연구방법론, 창작방법론 양쪽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은 예술적 연구에 대한 논의에서 예술적 연구의 형식을 파악하고 그것의 전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 있다. 오늘날 전시에서 예술적 연구의 결과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된다. 연구 과정의 아카이브를 늘어놓거나, 텍스트를 비치하거나, 혹은 특정한 예술적 형식을 부여하여 연구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모두 예술적 연구의 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전형적인 연구의 형식도 일반적인 예술의 형식도 아닌 예술적 연구의 형식적 특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최근 미술 현장에서 발견되는 예술적 연구의 전시 사례와 예술적 연구를 학제화한 외국의 문헌들을 돌아보며 예술적 연구라는 개념을 다시 돌아보고, 연구에 형식을 부여하는 문제와 그것을 전시하는 방법론을 둘러싼 문제들을 분석한다. 그를 통해 연구의 형식으로서의 예술적 연구, 예술의 형식으로서의 예술적 연구 둘 사이를 가로지르며, 예술적 연구가 전시라는 큐레토리얼 실천과 함께 어떤 가능성을 지니는지 그 의미를 살핀다.

- 발표자 : 이지민 (가나아트갤러리)

- 제목 : 국내 · 해외 미술시장의 흐름

국내 갤러리와 미술관은 최근 3-4년간 한국 작가에 주목하는 전시를 대거 기획, 소개하고 있다. 각 갤러리마다 주요 전속 작가들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정리하고 화업을 조망하거나 작가의 작업실과 작품 제작과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콘텐츠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였던 홍콩의 불안정한 정세로 서울이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은 문화 인프라 및 전시 공간, 작가와 미술대학, 컬렉터와 향유 계층 등 미술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받는다. 해외 우수 갤러리들이 서울 지점을 열고 있고, 해외 대표 옥션사인 “소더비” 경매사 역시 서울에 사무소를 오픈하였다. 2022년 9월 프리즈 서울 개최를 기점으로 서울로 향하는 국제적 갤러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컬렉터 층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갤러리와 경매사, 딜러 등 미술시장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이들의 세대와 특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국내 · 해외 미술시장의 전반적 흐름과 다양한 변화에 대해 실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